

순천 동천변 출렁다리 설치 계획 논란

市 “12억 원 들여 만든 케이블 자재 활용해야” vs 환경단체 “전임시장 적폐물 철거를”



순천 동천변 출렁다리 조감도

순천 동천변 출렁다리 설치 계획이 논란이 일고 있다. “12억원을 들여 이미 만들어진 케이블 자재를 활용해야 한다.”(순천시) “불필요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순천환경운동연합)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30억원을 들여 동천 저류지와 풍덕동 산책로

인 그린웨이에 길이 154m, 높이 4.5m, 폭 1.5m 규모의 출렁다리를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다. 순천시는 전임 시장 때인 2016년 봉화산 둘레길에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 훼손 우려와 물품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자 잠정 보류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이 위법성이 있다며 업체를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등을 청구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

졌다. 지난해 취임한 허석 시장이 이 사업을 재검토, 시민 여론과 선호도 등을 조사한 뒤 동천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미 12억원을 들여 제작된 케이블 184m가 있어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정원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거단지인 풍덕지구-오천지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2017년 전남도 감사와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았으나 업체 특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도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재정 낭비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업체도 경쟁 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원래 취지와 목적을 잃었음에도 아까운 다른 장소에 설치하지는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임 시장의 적폐물인데 예산낭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재추진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선 행정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1인 시위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의견이 나뉜다.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추가 비용이 드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문승태 순천대 교수는 “10억원 넘게 사들인 기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시민단체와 시가 머리를 맞대 논의해 모두가 수용하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올해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특별한 추석을”

연휴 기간 중 정상 운영...버블쇼 등 다채로운 행사

곡성군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과 가을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곡성군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기차마을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기기관차, 섬진강레일바이크는 운영 횟수가 감차 등 없이 매일 5회 정상 운행된다. 생태학습관, 4D영상관, 치치뽀뽀 놀이터, VR체험존 등 전시시설

과 미니기차, 드림랜드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도 정상시처럼 운영된다. 단 증기기관차나, 섬진강레일바이크는 매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섬진강기차마을 홈페이지(http://www.gstrain.co.kr/)에서 예매를 하는 것이 좋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석을 선물하고자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했다. 추석 연휴기간인 12일부터 14

일까지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 무대에서 키다리아저씨와 함께하는 풍선쇼, 버블쇼 등이 펼쳐진다. 기간 중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기차마을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드림랜드 광장에서 풍물공연도 진행된다. 여성 타악그룹 ‘도리’가 신명나는 가락을 통해 관광객들을 풍물 세상 속으로 여우러도록 이끌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섬진강기차마을로 놀러 오신다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화순군, 전남기술과학고에 ‘의료특성화학과 유치’ 성공

2020년 신입생 입학

화순군이 지난 4년여 동안 노력한 끝에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이하 기과고)에 민선 6기 공약 중 하나인 의료특성화학과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특성화고 학과 개편(재구조화) 심의를 거쳐 기과고(교장 김준석)에 보건간호과 1학급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했다.

△ 보건간호과 신설, 보건·의료산업 인력양성에 청신호

화순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백신(생물의약품)·보건·첨단의료산업과 연계한 의료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학과 유치를 위한 조건을 갖췄다.

군과 지역 의료기관·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 군민의 공감대가 보건간호과를 유치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초 의료 전문 인력양성, 안정적인 전문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난 해소,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의료특성화학과 유치 등에 힘을 쏟아왔다. 2015년부터 도교육청·기과고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학

과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지난 2018년 3월에는 화순군·도교육청·기과고·화순전남대병원·관내 병원이 참여해 산·관·학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왔다. 산·관·학 협력과 함께 치에 노력해 왔다.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한 군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90.3%에 달하는 등 전폭적인 군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끌어낸 것도 의료특성화학과 유치를 주요했다.

△ 기과고, 11월에 내년도 보건간호과 22명 신입생 모집

전남도교육청의 학과 신설 승인에 따라 기과고는 학과 컨설팅 등 최적인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돼 있고, 군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백신(생물의약품)·보건·첨단의료산업과 연계한 의료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학과 유치를 위한 조건을 갖췄다. 군과 지역 의료기관·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 군민의 공감대가 보건간호과를 유치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초 의료 전문 인력양성, 안정적인 전문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난 해소,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의료특성화학과 유치 등에 힘을 쏟아왔다. 2015년부터 도교육청·기과고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학

화순=박순철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